

일본 근대기 학교건축의 몇 가지 사례

Several Cases of School Building in Early Modern Era in Japan

전 봉 희*

Jeon, Bong Hee

1. 구 카이치학교 (舊 開智學校)

일본의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는 그 중요도에 따라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나뉜다. 국보라고 함은 중요문화재 중에서 특히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지정사유로 삼고 있다. 때문에 국보의 대부분이 중세 이전의 것들이고 근대시기의 것으로는 1864년 나가사키에 지어진 오오우라천주당(大浦天主堂)이 유일하다. 오오우라천주당은 국보 가운데 가장 연륜이 짧은 것이기도 하다.¹⁾

하지만 200건 남짓의 국보에 비하여 2,000건 3,300동을 웃도는 중요문화재 중에는 근대시기의 건조물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그 중에는 양관(洋館)과 관청, 은행과 공장 등과 같은 근대적 시설은 물론, 등대와 주철교와 같은 건조물도 포함되어있다. 이 가운데 근대적인 학교관련시설이 약 20여건 포함되어있어 주목을 끈다. 여기 소개하려고 하는 구 카이치학교(舊開智學教-중요문화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카이치학교는 개항장에 서양인들에 의해 세워진 선교목적의 학교가 아니라,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의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스스로의 자제에게 신식의 교육을 시키고자 지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개항기 일본인 목수에 의한 의양풍(擬洋風-의사 서양식) 건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구 카이치학교의 전경

카이치학교는 1873년 당시의 치쿠마(筑摩)현이 중심이 되어 현청이 있는 마쓰모토(松本)에 설립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교사는 그 2년 후인 1875년에 완공되었다. 현이 중심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기부금 명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전반 서구화에 의한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교육의 분야에서도 메이지 원년(明治元年, 1868)에는 유학(儒學)을 교육하는 구 쇼오헤이학교(昌平學校)를 대학교(大學校-문부성의 전신)로 하고, 양학(洋學)을 전수하는 카이세이학교(開成學校)와 의학교(醫學校)를 각 분국으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모두 동경대학의 전신), 1872년에는 학제(學制)를 발표하여 전국을 8개 대학구(大學區)로 나누고(1873년에 7개로 조정) 그 아래 각 중학구(中學區)와 소학구

* 정회원,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小學區)를 두었다. 학제의 발포는 일본에 있어서 근대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이후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라는 학교명은 이에서 유래한다. 이하하여 1873년 카이치학교는 제2대학구의 제1번 중학구 제1번소학으로서 정식 개교하게 되며 이때 교명을 카이치학교라 정한다. 이것은 그 한해 전에 치쿠마현에서 세운 현학(縣學)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그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 시대 마쓰모토번의 한코오(藩校 또는 藩學)인 소오쿄오칸(崇文館)에 이어진다.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의 교육기관은 평민의 자제를 위한 보통교육기관으로서 테라코야(寺子屋)와 함께 사족(士族)의 자제를 위한 관학으로 한코오가 있었다.

아직 국가적인 근대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개화한 번주 혹은 사족들이 있는 제 번(현)은 앞다투어 스스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갔고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한 요인이 된다. 치쿠마현에서 사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처럼 빠르게 현학을 설치한 것은 이후 마쓰모토 지역이 교육도시로 성장해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나가노현(치쿠마현은 1876년 나가노현으로 통합된다)에는 카이치학교 이외에도 막부말기에 세워진 한코오로서 마쓰시로문무학교(松代文武學校-사적)와 카이치학교와 같이 의양풍의 건물로 유명한 구 나카고미학교(舊中込學校-대지는 사적, 건조물은 중요문화재), 구제 마쓰모토고등학교(舊制松本高等學校-縣寶, 우리나라의 지방 유형문화재에 해당) 등 학교관련 문화재가 다수 남아있다.

카이치학교의 새로운 교사는 지역의 목수 타테이시 세이쥬우(立石清重, 1829-1894)에 의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교육에 어울리는 건축양식을 찾아 1875년 두 차례에 걸쳐 멀리 도쿄로 출장을



그림 2. 타테이시의 초상

다녀왔으며, 이 때 그가 남긴 스케치가 『동경출부기(東京出府記)』에 남아있다. 이때 주로 참고로 하였던 것이 현재의 동경대학의 전신인 카이세이학교(1873년 준공, 하야시(林忠恕, 1835-1893) 설계)와 동경의학교(1874년 설계, 1876년 완공)이다.



그림 3. [동경출부기]에 있는 타테이시의 스케치

또 카이치학교가 세워지기 1년 전인 1875년에는 현대 최초의 의양풍 학교건축인 나카고미학교가 세워진다. 이것 역시 지역의 목수 이시카와 다이지로(石川代治郎)에 의한 것으로, 그는 타테이시와는 달리 1869년부터 1873년까지 5년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식의 건축을 배우고 돌아왔다. 나카고미학교는 정면 7칸 길이 11칸의 2층 목조건축으로, 우진각의 기와 지붕 중앙에 팔각탑을 세우고 북을 걸어 정오와 저녁의 시각을 알렸다고 한다. 창에 유리를 사용하여 '유리학교'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변소에는 서양식의 변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는 일화도 전한다. 이러한 의양풍의 목조교사는 학제의 발포와 함께 18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전국 각지에 속속 지어졌으나, 그 대부분이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현상 변경되어 현재 그 원형이 남아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나카고미학교와 카이치학교는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건립당시의 모형

카이치학교가 세워진 곳은 마쓰모토의 시가지 중앙을 흐르는 메도바천(女鳥羽川)옆에 있는 번주의 원찰인 켄큐인(全久院)이라는 폐사지였다. 절터에 새로운 학교를 세운 것은 두 가지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가 왕정복고와 함께 제정일치를 주장하면서, 신도(神道)를 보호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소위 '폐불기석(廢佛棄釋)'이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불교문화재 파괴가 1860년대 후반이후 7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 전국에서 공공연히 행해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에도시대 이래 오랫동안 절이 교육기능을 담당하였던 전통과 관련이 있다. 조선초기의 많은 정자와 서원 등이 불교 폐사지와 관련 있는 것도 정권교체기의 이데올로기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하다.

당시에 세워진 교사는 현재 남아있는 본관 외에도 정면 7칸 길이 33칸(12.6m x 59.4m)의 교실동이 본관의 우측배면에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L자형의 평면을 하였다. 모두 2층 건물로 전체면적은 약800평(2,653m²)에 달하고 수용 아동수가 1,300인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국 최대급의 소학교였다. 공사비는 당시 화폐로 11,128圓에 이르는데, 한 해 전에 세워진 나카고미학교의 공사비가 4,615圓이고, 당시 일반 교원의 월급이 1圓내지 6圓, 목수 등의 일당이 25錢, 쌀 한되의 값이 5錢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한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카이치학교는 설립 당초부터 일본 제일급의 소학교임을 자랑하게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884년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만국공업박람회와 1892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카이치학교 교사의 사진과 도면 등을 출품하기에 이른다.

그 후 카이치 학교는 1896년 현관부를 개축하는 등 약간의 현상 변경을 거쳐 1963년까지 90년에 가까운 기간을 현역의 교사로 사용되었다. 그 사이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본관건물은 1949년 국가급의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되고, 이어 1961년에는 근대의 학교건축으로서 최초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 1965년에는 메이지시대 이래의 오랜 교육자료 등이 추가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한편 건립당시 본관에 잇대어 지어졌던 교실동은 1896년의 수해로 인한 개수와 1928년의 개축에 의한 변경 등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그 때문에 1963년 학교 이전시에 철거되었다. 현재 본관은 1963년의 구 카이치학교 폐교와 함께 현재의 자리로 이전 복원하여 새로운 교육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카이치학교의 교명은 새로운 박물관과 나란히 자리잡은 신 카이치소학교로 이어졌다.



그림 5. 신 카이치소학교-구카이치학교의 모티브를 채용하였다

카이치학교 본관의 규모는 정면 36.36m, 측면 13.635m이므로 곡척으로 환산하면 정면은 120척, 측면은 45척의 직사각형이 된다. 정면에는 12개의 창호가 등분할 되어 있고, 양 단부에는 조적조의 코너스톤을 흉내낸 문양을 두기 위해 약간의 여분을 두었다. 이를 도면으로부터 추산하면 9.5척을 모듈로 삼아 12개의 칸으로 등분할하고 양 단부에는 3척씩을 연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측면에서는 가운데 9척 폭의 복도를 두고 전후로 18척 폭의 교실부를 두는 대칭형 평면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외관은 지금도 학교건축의 기본적인 계획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듈조정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실 구분에 있어서는 외관의 모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중앙 현관부, 후면의 교실동과의 연결 통로부, 교실부 등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다. 교실의 경우는 길이 24척, 폭 18척의 직사각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약 40m²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1886년의 소학교령과 1891년의 설비준칙에 의해 결정되어 이후 오늘날까지 학교 교실의 규모기준이 되는 20평(66.1m²)과는 차이를 갖는다.

평면의 구성은 정중앙에 중복도를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두고 전후로 방을 배열하였으며 가운데 현관부를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교실부, 우측으로는 강당 및 사무실, 교무실 등의 공공적인 방을 두었다. 정면이 모두 12개의 모듈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 현관부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있게된다. 이러한 방 배열은 우측의 후면으로 대형의 교실동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래서 교무실과 강당 등은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진 교실부의 중간 위치에 놓이는 합리적인 배치가 된다. 계단의 위치 역시 중앙에 교사용의 들음계단을 두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상하층을 연결하는 학생용 계단을 두어 구분하였고, 2층의 중앙에 있는 별도의 원형계단은 지붕의 팔각 옥탑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문을 달아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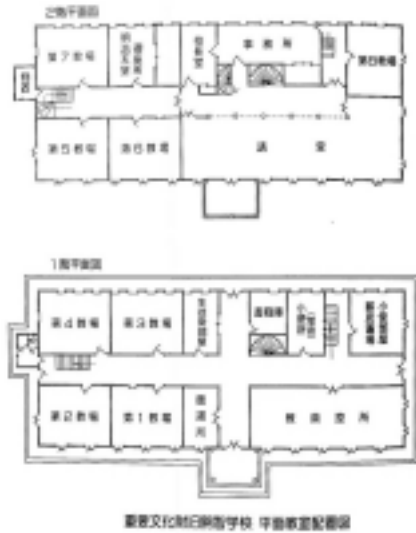


그림 6. 상하층 평면도

카이치학교가 일본의 근대건축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러한 합리적인 평면배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담아내는 틀로써 서양의 건축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해 낸 발명품으로서의 구조와 의장에 주목한 결과이다. 순목조의 건축이지만, 외벽의 의장은 조적조를 연상케 하는 오더, 아치, 코너스톤이나 줄눈 등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을 총칭하여 의양풍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근대 건축가들에 의한 양식 건축을 위로부터의 근대 혹은 엘리트 근대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여 의양풍 건축은 아래로부터의 근대 혹은 대중에 의한 근대건축이라고 성격지을 수 있다. 의양풍 건축의 주도 세력은 주로 개항장 등을 통하여 외래의 근대식 건축을 본 재래의 목수들이다. 일본근대건축사의 서술에 있어서 의양풍 건축은 한동안 정식이 아닌, 그리고 독창성이 없는 대중건축으로 폄하되어왔지만, 1950년대 이후 소위 일본식 근대의 자랑스러운 표징으로써 각광을 받게 된다.

의양풍 건축의 시작은 1868년 동경에 세운 츠키치호텔관(築地호텔館)에서 비롯한다. 설계자는

현재의 시미즈건설(清水建設)의 창업자인 2대 시미즈 카이즈케(清水喜助, 1815-1881)이다. 그는 막부말기 요코하마의 청부업자로 등록하여 거류지의 양관을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조의 양풍 건축을 건설하게 된다. 개항을 진후하여 일본에는 서양인 기술자에 의한 양풍의 건축이 지어지며 그 대부분은 벽돌을 이용한 새로운 구조였지만, 시미즈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전통적인 목수들은 재료와 구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래의 목조기법을 이용한 의사양풍의 건축을 행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양풍 건축을 특징은 평면 구성에 있어서 의자식 생활양식을 채택하였다는 점, 평면구성이 중앙에 현관을 두고, 홀이나 속복도를 면해 실들을 나란히 배열한 단순한 것이면서 외곽은 정방형과 직방형의 단순한 형태를 채택하였다는 점, 단순한 외곽형에 비해 그 표면 장식이나 입면 모티브로 외래의 양식을 모방한 모티브를 채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양풍의 장식조차 재래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7. 정면현관부

이러한 의양풍 혹은 목조양풍건축은 건축 자체의 양식사적 의미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지만, 갑작스러운 외래의 근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거부감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완충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와 심지어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고 넓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초기의 근대적 시설인 관청과 학교, 공장의 건축을 담당

하였던 공부성 영선과(工部省營繕課)에서 채택한 전략은 목조 의양풍 건축 중에서도 일반 건설업자에 의한 화려한 장식세공이 가해진 것과 달리 의장을 최소화한 간결한 것이었다. 그것은 건설비가 적게 들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전국적인 확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보면 관청 건축류가 대개 무장식의 좌우대칭의 정형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도 여기에 기원을 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카이치학교의 모델이 되었던 개성학교 역시 영선과의 설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제의 반포는 1872년이지만, 그 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학교의 설정과 소학교의 설립은 1868년의 교토부에서 처음 시행된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학교의 설립은 그 최초부터 상부의 지시를 하부의 일정한 지역적 민간조직으로 전파하기 위한 기능을 아울러 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정(町)으로 짜여진 지역조직을 소학구로 재편하면서 각각에 소학교를 설립하고 소학교는 교육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조직의 집회소 및 관리의 출장소의 역할을 하며, 포고의 내용을 상세히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1869년 5월 최초의 소학교가 준공되기에 이르며, 이 때의 평면은 상하층에 교실을 두고, 특히 하층에는 흙바닥의 내부공간을 두어 좌식 생활에 어울리게 하였고 관리의 숙박소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과정을 거쳐 학제가 반포되고 카이치학교가 건설되는 187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독립적인 학교건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림 8. 사진 누락

카이치학교와 나가고미학교 모두 지붕에 종탑이나 고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은 초기 양풍 학교건축의 공

통된 것이기도 하다. 이 역시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소학교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교토의 초기 소학교건축에서 지역민의 요구에 의하여 망화루(望火樓)나 시보루(時報鼓)의 설치가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개 2층으로 건설되는 당당한 양풍 건축물인 소학교는 지역의 중심 시설로서 공동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근대적 상징물을 지붕높이 올린 것이다. 카이치학교의 지붕에는 팔각형의 전망발코니가 딸린 옥탑을 두어 종을 설치하였고 그 꼭대기에는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알리는 표식을 높이 첨탑에 매달았다. 이러한 카이치학교의 낙성식에서는 향응에 참석한 참관인사가 6~7천명 그 외 구경꾼이 1만2천 여명이 모여든 가운데 고각(高閣)의 시보가 시내 사방에 울려 퍼지자 생도 1,318인, 교사 51인이 등교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고 전하여 소학교의 건설이 도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같은 해 6월 치쿠마현 청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카이치학교는 임시청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9. 상층 복도-좌측으로 강당이 보인다



그림 10. 일반전시실 내부



그림 11. 당시의 책걸상



그림 12. 당시의 뽕틀



그림 13. 매점으로 사용되는 부속동

이처럼 근대기의 소학교는 지역의 중심시설로서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동으로 건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건축(公共建築)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관립의 학교가 공적 기능을 일부 수행한 것은 여기서 처음은 아니며, 조선시대의 향교나 일본 에도시대의 한코오(藩校)가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학교시설을 이야기할 때 기능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가 가지는 근원적인 존재이유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학교는 단지 지식의 전달 장소이

서는 안되며, 나라를 구성하는 바탕인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어떠한 시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단지 강습소에 그칠 것이다.

2. 마쓰모토 고등학교 (舊制 松本高等學校)

이상 카이치 학교에 대한 간략한 건립경위와 의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카이치 학교가 있는 나가노현의 마쓰모토시에는 구제 고등학교기념관(舊制高等學校記念館)이 있어 주목을 끈다. 구제의 고등학교는 1886년 중학교령에 의하여 기존의 중학교를 심상중학교와 고등중학교로 나누고 심상중학교는 각 부현(府縣)에 하나씩, 고등중학교는 전국에 5개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여 1894년 고등학교령의 제정으로 고등학교로 개명되고, 1948년 신제 고등학교의 발족과 함께 1950년 폐교되었다. 구제 고등학교는 이후 대부분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으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일반적인 중등 교육과정의 연장인 신제 고등학교와 달리, 구제의 고등학교는 대학의 예과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전원이 대학교로 진학하는 분과 과정과 일부이지만 법학, 의학, 공학과 같은 전문직업을 이수하는 전문과 과정이 병설되었다. 하지만 점차 전문과 과정은 전문학교로 독립하여 나가고 마침내 1903년 전문학교령의 반포로 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면서 고등학교는 대학예과 과정만을 갖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때문에 교육과정 역시 장차 대학에서 서구의 선진학문을 수학하기 위한 외국어 공부와 교양학문 위주로 편성되어있고 입학생수가 제한된 엘리트과정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유의 학풍이 매우 높았다. 흔히들 과거의 학생을 이야기하면서 망토를 걸치고 원서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숲길을 드나들었다는 학창의 거친 낭만의 본무대가 바로 구제 고등학교 혹은 대학 예과이다.



그림 14. 구제 마쓰모토고등학교 모형

구제 고등학교의 교사건축은 크게 메이지시대에 이어진 것과 다이쇼(大正, 1912-1925) 이후에 이어진 것으로 구분된다. 이는 전자가 제1고, 제2고 하는 식으로 숫자로 명명되는 것에 반해 후자가 지역명을 학교이름에 관하는 것과 일치하며, 전체 배치와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갖는다. 특히 1880년대 중반 최초로 설립된 제1고에서 제5고까지는 당시 문부성의 기사로 있던 야마구치(山口半六)의 설계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나친 장식은 삼갔지만,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위하여 고가의 붉은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일부 모서리돌과 아치부 등은 화강암을 사용한 단정하고 품격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18년의 새로운 고등학교령 공포 이후에 설립된 지역명을 갖는 고등학교들은 명치초기의 소학교건축과 같이 경제성을 강조하여 효율적인 목조교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15. 구제 고등학교의 배치유형

이루어진 벽돌조의 메이지기 고등학교 교사와 대비되는 점이다. 더욱이 이 시기 고등학교의 설립은 지역의 후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설립 허가한다는 정책을 펴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유치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중앙정부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전자가 메이지 아카데미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쇼기에 이와 같은 전문학교 대량 신설의 계획을 입안한 당시 문부상의 이름을 따서 나카바시(中橋)플랜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16. 본관 정면 현관

1920년에 완공된 본관은 편복도의 목조 2층 건물로 지붕은 기와를 올린 우진각형을 띠고 벽면에는 세로로 긴 오르내리창을 설치한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ㄷ자형으로 꺾여 있는 평면배치를 가지므로 내부에는 직사각형의 중정이 생기고 교문에 가까운 모서리는 사각형으로 돌출하여 중앙현관을 만들고 그 안에 중앙계단을 두었다. 남향을 한 두 날개채 부분이 주로 교실부가 되고, 가로에 면한 가운데 짧은 면이 사무실 등의 공간이 된다. 벽면은 가로세로의 격자상으로 셋기둥과 깔도리, 층도리 등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의 면을 가로, 세로의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림 17. 본관 중정

하층의 지면과 접하는 부분에만 화강석 장대석을 두 커로 쌓아 내부의 바닥이 지면과 떨어지게 하였다. 1921년 완공된 강당은 장방형의 목조 단층 건물이지만, 두 면이 가로에 면하고 나머지 한

면은 교내의 중앙도로에 면하는 등 각 입면이 서로 다른 주위환경에 만나기 때문에 입면구성에 있어서는 네 면이 모두 다른 매우 개성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교문에 가까운 모서리 부분에 본관의 중앙현관과 짝을 이루는 위치에 주출입의 현관이 놓이고, 내부의 현관 홀에는 준비실과 2층의 발코니석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평면의 반대쪽으로는 무대부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교내의 중앙도로를 향하여 돌출한 현관부를 설치하였다. 단층이지만 단일공간으로 사용되는 강당이므로 층고가 높아서 중앙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본관 건물과 짝을 이루며, 벽면의 의장 역시 격자상의 골조와 그 사이공간에 판벽을 끼워넣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8. 본관 외벽 상세

구제 마쓰모토고등학교는 1950년 다른 고등학교와 함께 폐교되어 신슈대학(信州大學)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교정의 일부와 함께 아가타노모리 문화회관(あがたの森文化會館)으로 개명되어 공민관, 도서관 등을 갖춘 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어 1981년에는 본관 및 강당이 나가노현의 현보(縣寶-지방유형문화재급)로 지정되어 보존되기에 이른다. 또한 1983년에는 본관 후면으로 구제마쓰모토고등학교기념관이 설립되어, 전국의 구제 고등학교의 기록물과 유품등을 진열한 본격적인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났다. 가까이에 있는 카이치학교가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박물관이라면, 마쓰모토고등학교는 구제고등학교박물관이 된 셈이다. 박물관내에는 마쓰모토 고등학교에 관련된 것만이 아닌 구제고등학교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다. 구제의 고등학교



그림 19. 강당



그림 20. 강당의 내부

는

경성제대 예과여순, 타이베이 등 해외에 있는 것 그리고 일부의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38개교가 있었다고 한다. 기념관 내에는 이들 각 학교의 교모, 빼지, 교기, 기념사진 등은 물론, 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육사를 정리한 판넬을 전시하고, 또 당시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자유로운 학장을 만끽하였던 기숙사의 내부 생활상을 일부 재현하기도 하는 등 향수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념관은 각 고등학교의 동창회와 연계하여 당시의 교육자료 등을 수집하는 작업도 병진하고 있다



그림 21. 기념관 내부 전시실



그림 22. 기념관내의 기숙사 복원모형



그림 23. 기념관에 전시되어있는 제1고
입면도

지역민의 20년에 걸친 고등학교 유치노력과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확산정책의 결과 개교하게된 구제 마쓰모토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마쓰모토 고등학교의 입지에 관한 것으로, 마쓰모토시는 개화기이래 학도(學都)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왔고, 그러한 명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초기의 소학교 진학률이다. 카이치학교가 세워진 1876년의 나가노현내 취학률은 63.24%로써, 전국평균인 38.31%는 물론, 동경도의 58.80%를 능가하는 전국수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나가노현 통합 이전의 치쿠마현만을 따로 생각하면 71.57%로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이 학도 마쓰모토의 명성을 드높인 것이며, 이후 사범학교와 의학교, 중학교, 여학교 등의 설립이 뒤따르고 마침내 고등학교의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입지는 마쓰모토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구 마쓰모토 시가지의 동편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구 시가지의 서변을 따라 철도가 지나면서 역사가 세워져있고 그와 대칭되는 위치에 고등학교를 세워 역사와 마주보게 하였다. 마쓰모토역과 고등학교를 잇는 동서의 대로는 현재도 마쓰모토시의 중심가로서 되며, 중세의 축이 남북선이었다면 근대의 축은 동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와 교육, 이 두 가지의 새로운 기념비가 중세도시 마쓰모토를 근대도시로 만드는 축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도시경관의 입장에서서는 물론 근대적 생활양식의 상징이라는 면에

서도 아주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근대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도 아울러 짐작하게 해준다.



그림 24. 입지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역과 마주 보는 자리

3. 구 제4고등학교(舊 第四高等學校)

동해에 면한 이시카와현(石川縣) 가나자와시(金澤市)에는 구 제4고등학교가 남아있다. 전술하였다시피 제4고등학교는 메이지시대 문부성 영선과의 작풍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벽돌조의 중층 건물이다. 188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일본근대건축사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수학한 일본인 건축가들이 최초로 그들의 독자적인 작품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즉 개항이래 약 20년 간외국인 기술자와 건축가에 의한 이식건축의 시기였다면 이제 한 시기를 지나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길러진, 그들의 작품을 보고 배운 일본인 근대건축가들이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물론 이 이식건축의 시기에 종래의 목수들에 의해 의양풍 목조건축이 이어졌던 것은 카이치학교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제4고등학교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관청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메이지 중기의 건축을 보여주는 전형성이 있다. 대개 외국인 건축가에 의한 이식건축이 19세기 유럽의 절충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에 비하여 이들 일본인 건축가의 작품 특히 관청건축가의 작품은 장식적 절제된 기능주의적 건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4고등학교의 설계자는 문부성

의 건축가로 초기의 고등중학교 및 제국대학 이과대학, 동경음악학교 등을 설계하여 일본고등교육건축의 기초를 쌓은 아마구치 한로쿠(山口半六, 1858-1900)이다. 그는 공부대학(工部大學-동경대학 공대의 전신)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메이지기의 건축계에서 다소 이단에 속하는 카이세이학교(開成學校)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에콜쌍트랄에서 수학한 것이 이후 그의 이지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고는 벽돌로 쌓은 4개의 문기둥을 가로에 면하여 두고 문짝을 달아 정문을 삼았으며, 그에 정면으로 중앙에 현관을 가진 당당한 중층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벽면은 마구리켜와 길이켜가 한줄씩 교대로 쌓이며 마구리에서는 이오토막을 사용하여 줄눈을 어긋나게 한 영식쌓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따르고 있다. 영식쌓기는 다른 벽돌쌓기법에 비하여 외부 의장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강도의 면에서 가장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5. 제4고 전경

외관에서 특이한 점은 정면중앙의 현관부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삼각형의 지붕면을 만든 점과 지붕위로 높이 솟은 굴뚝인데 이는 이 지역이 눈이 많은 지역이라 지붕적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상하층 모두 세로로 긴 창호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다른 어느 학교건축보다 많은 창면적을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창문 위의 원호 아치부와 상하층의 층간 돌림띠 부분에 부분적으로 검정벽돌을 사용하고, 또 의장적인 목적으로 흰색을 도장하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지붕은 전체를 우진각형의 지붕틀을 올리고 기와를 덮었다. 평면은 편복도의 일자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단

부는 중앙에 계단실을 둔 중복도로 처리하여 폭이 조금 두꺼워졌고, 중앙부 역시 현관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폭을 조금 더 크게 하여 양단부와 가운데가 조금 튀어나온 좌우대칭의 권위적인 구성을 취하였다. 여기서 중앙부와 양단부를 좀더 튀어나오게 처리하면 박동진의 설계에 의한 보성전문 본관 및 중앙고보 본관과 유사하게 된다.



그림 26. 제4고 정면



그림 27. 하층 복도

구 제4고등중학교는 1887년 제4고등중학교로 설립되어 현존의 건물은 그 2년후인 1889년 준공되었으며, 1894년 고등학교령의 제정으로 제4고등학교로 개명되어 1950년 폐교될 때까지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가나자와대학 이학부, 가나자와 지방재판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1966년 현립 향토

자료관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1969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86년 향토자료관이 구 육군병기창을 개조하여 헌립박물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관을 이시카와근대문학관(石川近代文學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관내에는 지역 출신의 문인들의 기념관 외에 4고기념실과 동창회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당시의 교육자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8. 당시의 교실 모습을 복원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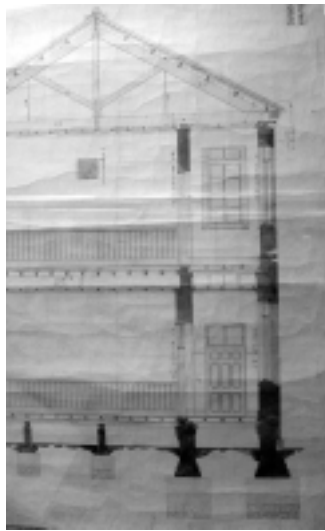


그림 29. 전시되어있는 본관 주단면도

4. 마쓰시로 구 문무학교(松代 舊 文武學教)

이상에서 소개한 학교들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적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건축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그 교육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아울러 가진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마쓰시로 문무학교는 유신 이전 막부말기의 지방의 소규모 변에서 행한 자율적인 근대화노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술하였다시피, 막부말

기에는 대중을 위한 소학교로서의 페라코야(寺子屋)와 함께 무사층의 자제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한코오(藩校)가 있었다. 한코오는 대개 孔子를 모시는 사당을 두고 주자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었지만, 에도 중기이후로 가면서 점차 산학(算學), 란학(蘭學), 의학(醫學) 등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이른다. 이것은 오랜 평화기가 이어지면서 무사의 역할이 변모하는 것과 관계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쓰시로 8대 번주인 사나다 유키츠라(眞田幸貫)이 개화사상가인 사쿠마 조잔(佐久間象山, 1811-64)의 의견을 들어, 란학과 서양포술(西洋砲術)등 서양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개설을 계획하였고, 그의 사후 9대 번주인 유키노리(幸教)가 완공하였다. 학교의 건축은 1853년에 완공되었지만, 때마침 번주의 저택이 화재를 당하여 2년간 임시 변역소(藩役所)로 사용되다가 1855년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하여 마쓰시로번이 없어지면서 마쓰시로문무학교는 폐교하게 되고 그 대신 같은 자리에 근대식 학교인 마쓰시로 학교가 들어서 구 문무학교건물을 일부 이용하여 개교하게 된다. 현재는 시립의 마쓰시로 소학교가 바로 이웃하여 그 전통을 잇고 있으며, 번주의 저택인 구 사나다 주택(舊眞田邸-사적)과 담을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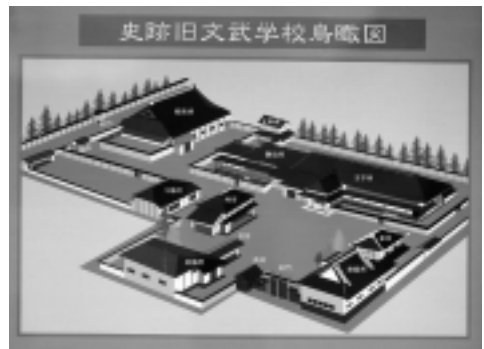


그림 30. 마쓰시로문무학교 조감도

문무학교는 기존의 한코오들과는 달리 교내에 공자의 사당을 만들지 않고, 건축 역시 지극히 실용적인 기능위주의 간소한 목조건축으로 일관하여 근대적인 학교건축으로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설은 정문인 표문(表門)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형 강의실에 해당하는 문학소(文學

所)가 본관격으로 당당하게 자리하고, 그 전면의 좌우에 동서(東序)와 서서(西序)가 시립하는 형식을 보여 일견 학교 등 유교 교육기관의 전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술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부지 내에 산재하여 있고, 관청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어역소(御役所)가 문학소에 연접하여 자리한 점이 특색이다. 무술교육 관련기관으로는 검술소(劍術所), 유술소(柔術所), 궁술소(弓術所), 창술소(槍術所)가 각각 독립된 건물과 마당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보조공간으로 표문과 번소(番所), 2층의 문고장(文庫藏) 등이 있다.



그림 31. 정청 문학소 정면



그림 32. 문학소의 내부

한 건물로 이어진 문학소와 어역소는 합하여 정청(正廳)이라 불리는데,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며, 또 번주와 교수 및 관리, 생도 등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기 구분된 출입구와 위계있는 내부공간을 갖는다. 한편 동서와 서서는 각각 2층 건물로 전면과 후면에 뿔마루를 두고 가운데 4칸 규모의 다다미방을 둔 일반 교실이다. 동서는 주로 군사학 특히 포병술의 이론 등을 교수하였고, 서서에서는 예학

(禮學), 한방(漢方), 의학, 서양의학 등을 가르쳤다. 이외에 궁술소, 유술소, 창술소, 검술소 등의 건물은 각각의 무예를 교습하는 도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궁술소에는 시장이 덧대어 있다. 이들 건축은 가능한 넓은 무주공간을 만드는 단순한 것들이다. 하지만 1863년 궁술과 유술은 정규 교과에서 제외되었고, 검술과 창술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선택과목이 되었다. 또한 포병술의 실제 훈련은 창술소의 공간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배치는 문무학교라 이름하였지만, 사실상 무를 우선하는 실용적인 학풍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마쓰시로 구 문무학교는 1953년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복원수리가 행해져 현재와 같은 모습을 남기고 있다. 공자묘를 중심에 둔 전형적인 한코오는 아니지만, 막부말기 개화한 번주에 의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후의 한코오로서 마쓰시로 구 문무학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구문무학교의 건축이 보여주는 실용성이 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문학소에 마련된 번주의 자리와 번주의 저택에 나란한 학교의 입지 등은 근대기 교육이 갖는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서서의 전경



그림 34. 궁술소의 모습



그림 35. 창술소의 내부

마쓰시로는 현재 나가노시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지만, 과거는 10만석의 번주가 거하는 거성이었다. 현재 그 성적(城跡)이 남아있고 또 주변에 문화재급의 주택들이 여러 채 남아있는 역사도시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무엇보다 긴밀하게 관계 있는 것은 마쓰시로 대본영(松代大本營)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지하동굴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점이다. 나가노현은 일본열도에서 가장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며, 주변이 일본 알프스로 알려진 고산준령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가 된다. 패색이 짙어가던 1944년 일본 군벌은 본토항전을 위하여 이곳의 험준한 산악을 이용하여 천황관련시설과, 군사지휘소, 방송시설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암굴을 파기 시작하였으며 종전의 시기에는 거의 완성 직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수탈이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많은 동굴 중 견학이 가능한 것은 조잔지하호(象山地下壕) 뿐인데, 앞서 문무학교의 개설을 지도한 사상가의 생가와 인접하여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조잔지하호는 그 규모나 위치 등에 있어서 일급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세기 일본의 성공과 그 그늘에 드리워진 한국의 아픔을 공간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유적이다.

5. 후 기

필자는 지난 여름 두 달간 나가노에 머물면서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근대기



그림 36. 시립마쓰시로소학교

일본 학교건축의 귀중한 사례를 다양하게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 막부말기 구세력의 자발적 근대화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 마쓰시로 구 문무학교였다면, 카이치소학교는 개항에 따른 근대적 충격이 가해진 다음의 일본적 대응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나자와에 있는 제4고등학교와 마쓰모토고등학교는 각각 메이지기와 다이쇼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입지와 배치, 건축적 의장의 면에서 전형성을 띠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일본전통의 목조도 있고, 서양풍을 본뜬 새로운 양식의 목조건축도 있으며, 보다 본격적인 근대건축으로서의 붉은 벽돌조 건축과 20세기초에 유행한 아르데코풍의 목조비늘판벽식 건축도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은 교육의 장소에 대한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근대인들의 뜨거운 존경과 열정이다. 근대문명의 발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철선(鐵船)의 충격으로 맞이한 근대, 그들은 그 놀라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산흥업, 부국강병과 함께 교육입국을 기치로 내세웠고 지도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협조에 의하여 당당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19세기의 노력이 지난 20세기 일본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학교건축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엄숙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들 모두가 현재 문화재로 잘 보존되어 있는 점, 특히 카이치소학교의 교육박물관, 제4고등학교의 이시카와 근대문학관, 마쓰모토고등학교의 구제고등학교기념관 등 당시의 교육, 문화와 관련된 박물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역시 무척 인상적이다. 이를 통하여 근대기의 일본은 현재인들의 마음 속에 오늘을 있게 해준 가까운 과거로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1. 稻垣榮三, 日本の近代建築(その成立過程)(上), 鹿島出版會, 1979(1987)
 2. 村松貞次郎, 日本近代建築の歴史, 日本放送出版會, 1977(1994)
 3.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上) -幕末.明治編-, 岩波書店, 1993(1994)
 4. 古川貞雄 外, 長野縣の歴史, 山川出版社, 1997(2000)
 5. 長野縣高等學校 歴史研究會 編, 長野縣の歴史散歩, 山川出版社, 1994(2001)
 6. 松本市立博物館 編, 松本まるごとウォッチング, 2001
 7. 管理事務所 編, 重要文化財舊開智學校 展示解説圖錄, 1990(1999)
 8. 舊制高等學校記念館 編, 舊制高等學校の歩み, 松本教育委員會, 2000
 9. 重要文化財 舊開智學校 안내팜플렛, 2002
 10. 舊制高等學校記念館 안내팜플렛, 2002
 11. 石川近代文學館 안내팜플렛, 2002
 12. 장기인, 한국건축대계2. 벽돌, 보성문화사, 1986
 13. 장기인, 한국건축대계4.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 <http://www.kibun.com>
<http://www.geocities.co.jp/SilkRoad-Forest/2276/school.html>
<http://www.h2.dion.ne.jp/~akaba/index.htm>
<http://www.mars.dti.ne.jp/~mmm/kindai.htm>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과제번호 R01-2000-000-0036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